

빅2 항공사 결합 ‘먹구름’... EU “승객·화물 경쟁 위축”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변호사비용 1000억 투입 총력전 EU, 대한항공에 중간 심사보고서 통보 “우려 사항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 美 법무부, 승인 심사 미뤄 겁악재

국내 항공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이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며 먹구름이 끼고 있다.

대한항공 최고 경영층이 앞장서서 해외 기업 결합 심사 초기부터 각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 비용으로만 1000억원 넘는 금액이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힘겨운 모습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



김포국제공항에 주기돼 있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 /뉴시스

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SO)를 발송했다. 집행위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SO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다. SO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으로, SO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의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EU 경쟁 당국의 SO 발부는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C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

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미국의 심사 과정도 순탄치 않다. 미국 법무부가 합병 승인 심사를 미루고 있어 악재가 겹치는 모습이다. 당초 대한항공이 경쟁당국 요청대로 슬롯 반납 내용이 담긴 시정안을 제출해 심사 통과가 유력해 보였으나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예를 발표했다. 이후 심사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일본은 경쟁 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 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화학, 이스라엘 지중해 ‘식수’ 만든다

아쉬도드 담수화 프로젝트 역삼투막 단독 공급 업체로 선정 2024년 플랜트 본격 가동

LG화학의 정수 기술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중해권 시장에서 인정받고, 대규모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LG화학은 18일 이스라엘 아쉬도드 담수화 프로젝트에 역삼투막 단독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총 3만여 개의 역삼투막을 아쉬도드 담수화 플랜트에 공급할 예정이다. 역삼투막 3만여 개는 연간 1억톤(하루 33.6만톤)의 해수를 담수화해 약 11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생산할 수 있다.

북아프리카 및 이스라엘이 속한 지중해 연안은 덥고 건조해 담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식수 대부분을 해수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고성능 역삼투막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아쉬도드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5대 담수화 플랜트 중 하나로,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인 샤피르(Shafir)와 수처리 업체

GES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아쉬도드 플랜트는 시설을 증설하고 있으며, 2024년 플랜트가 증설 된 뒤 본격 가동되면 이스라엘에서 LG화학의 역삼투막이 정수하는 지중해 물은 기존 필마힘, 하데라, 아쉬켈론 등의 담수화 플랜트 정수량을 합쳐 연간 총 3억톤(하루 82.5만톤)”이라며 “이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쓰이는 담수의 1/3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담수화 시설’은 일정한 주기로 역삼투막 필터의 교체 수요가 발생해 지속적인 매출 발생 효과가 있어 유망한 사업으로 꼽힌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LG화학 역삼투막의 수요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의 설명에 따르면 바닷물을 통과시키면 염화나트륨 분자 1만 개 중 단 11개만 남을 정도로 역삼투막은 염분 제거율(99.89%)이 높다. 특히 박막 나노 복합체(TFN, Thin Film Nanocomposite) 기술로 나노 입자를 표면에 얹어 염분 제거율은 유지하면서도 타사 제품보다 유량(flux)은 20% 이상 많다. 높은 압력이 필요하지 않아 에너지

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스라엘 지역 대형 수주를 바탕으로 LG화학은 지중해 지역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LG화학은 수처리 필터 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수주량을 늘려 현재 LG화학의 역삼투막으로 정수하는 물은 하루 510만톤, 연간 18억 6000만톤이다. 510만톤은 1700만명이 소비하는 물의 양과 같다. 이 중 이집트,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등에서는 전체 물 수요량의 50% 이상을 LG화학의 역삼투막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소비자가 많다.

형훈 RO필터사업담당 상무는 “이스라엘 아쉬도드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핵심 시장인 지중해 지역에서 LG화학 역삼투막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며 “지구 온난화로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한국도 최근 남부 지방의 가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 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보다 깨끗한 물과 수처리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LG전자, ‘프리즈 뉴욕’서 올레드 TV 디지털 아트 전시

예술적인 화질을 자랑한다. LG전자는 17일(현지시간) 뉴욕 더세드에서 개막하는 ‘프리즈 뉴욕’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행사는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프리즈 아트페어’로, 스위에서 열리는 ‘아트바젤’과 함께 세계적인 행사로 평가받는다. LG전자는 전시관 8층 라운지 공간에 97형 올레드 예보를 비롯해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이젤과 포제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군으로 갤러리를 조성했다. 유리 천장과 노출 콘크리트 벽에 창문처럼 올레드 TV를 세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조성했다. /LG전자

LG 올레드 TV가 세계 최대 아트페어에서도 예술적인 화질을 자랑한다. LG전자는 17일(현지시간) 뉴욕 더세드에서 개막하는 ‘프리즈 뉴욕’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행사는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프리즈 아트페어’로, 스위에서 열리는 ‘아트바젤’과 함께 세계적인 행사로 평가받는다. LG전자는 전시관 8층 라운지 공간에 97형 올레드 예보를 비롯해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이젤과 포제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군으로 갤러리를 조성했다. 유리 천장과 노출 콘크리트 벽에 창문처럼 올레드 TV를 세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조성했다. /LG전자

삼성전기, 4년만에 해외 고객 초청 SCC 재개

주요 제품·기술 소개, 생산 시설 견학

삼성전기가 해외 고객들을 초청해 컴포넌트 ‘초격차’를 자랑한다.

삼성전기는 17일부터 19일까지 ‘2023 SEMCO 컴포넌트 컬리지(SCC)’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SCC는 해외 고객을 회사로 초청해 MLCC와 전자소자 등 컴포넌트 사업부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생산 시설 견학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만에 열렸다.

올해 SCC는 130여 고객사 200여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20% 늘었다. 주력 제품과 미래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확인했다.

삼성전기는 MLCC 생산라인 투자를 통해 제품 이해를 돕고 기술력을 과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단절됐던 협력을 강화하고 매출 확대와 잠재 고객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장 라인업을 확대하고 인지도 제고 및 정기적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이 전기 해외 고객 초청 행사(SCC)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류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노린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은 환영사에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IT용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과 전장용 MLCC 라인업 확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파워인덕터 등 전자소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디스플레이, XR 강화... 美 ‘이매진’ 2.9억에 인수

‘미래 먹거리’ XR 기기 시장 겨냥

삼성디스플레이가 차세대 XR 기기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들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매진(eMagin)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와 최종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수 금액은 2억1800만달러로, 한화로는 약 2900억원이다. 전년 증가에 10%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다.

이매진은 소자마다 색을 내는 RGB

OLEDoS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자체 증착 방식으로 성능을 높여 브랜드 ‘dP d’도 보유하고 있다. 하얀색 OLED에 컬러 필터를 사용하는 화이트 OLED+CF 방식보다 성능과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졌다. 미국 뉴욕주 호프웰 정선에 운영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만 양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매진을 인수한 후에도 우선 화이트 OLED로 XR 디스플레이를 양산한 뒤, 추후 RGB OLEDoS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정된다.

이매진 앤드류 CEO는 “이번 합병은

기술적 성과를 확인하고, 주주에 프리미엄을 제공할 것”이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겸 최고 경영자(CEO)는 “XR 기기는 향후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매진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XR 관련 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